

“고진영-코다 재미있는 경쟁 더 보고 싶어”



▲ 지난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참가한 고진영(오른쪽)과 코다

세계랭킹 2위 고진영(27)이 1위 벨리 코다(24·미국)와 작년 미국여자프로골프에서 선보인 경쟁이 ‘짧아서 아쉬울 정도로 또 보고 싶은 긍정적인 라이벌 관계’로 평가받았다.

19일 ‘MK스포츠’에 따르면 미국 월간지 ‘골프 다이제스트’는 전날 “고진영-코다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은 라이벌’이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경쟁을 본격적으로 펼치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LPGA투어

가 끝났다.”면서 새해에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경쟁을 계속 이어가길 원했다.

지난 시즌 고진영은 7·9·10·11월, 코다는 2·6·8(올림픽)·11월 우승을 차지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둘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승리를 주고받은 2021년 6-11월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매우 가까운 경쟁이었다.”며 회상했다.

“지난 시즌 일정이 끝나면서 어쩔 수 없이 중단된 흐름을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고 희망한 ‘골프 다이제스트’는 팬에게 느껴지는 둘의 라이벌 관계를 ‘휴일이 끝나고 있어 아쉬운 일요일 오후’에 비유했다. 고진영은 정확도, 코다는 파워가 낫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고진영은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 5승을 거둬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CME글로벌 레이스(대상포인트) 1위로 LPGA투어 3관왕에 올랐다.

코다는 LPGA투어 4승과 도쿄올림픽 금메달에 힘입어 작년 11월부터 27주째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 고진영은 2019년 4-6월, 2019년 7월-2021년 6월, 2021년 10월-11월까지 106주 동안 톱랭커였다.

커리, 듀란트 부상으로 NBA MVP로 ‘급부상’

미국프로농구(NBA) 2021-2022시즌 MVP 전선에 변화가 감지됐다.

20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시즌 초반 해독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강력한 MVP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NBA 개인 최다 3점슛 기록을 경신한 후 갑자기 극심한 슛 난조에 빠지자 MVP 후보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이에 일부 매체는 “커리는 더 이상 MVP 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신 케빈 듀란트(브루클린 네츠)가 MVP 1순위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평균 30점에 육박하는 그의 득점력에 후한 점수를 줬다. 결국 이번이 없는 한 듀란트가 MVP가 되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이번이 생기고 말았다. 듀란트가 지난 15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경기 도중 왼쪽 무릎 부상

을 당해 6주 결장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커리가 다시 슬그머니 MVP 후보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커리는 점점 슛 난조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커리도 큰 부상은 아니지만, 잔 부상으로 결장이 잦아지고 있는 점이 MVP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커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선수는 아니스 아테토쿤보(밀워키 벅스)와 지난 시즌 MVP 니콜라 요키치(덴버 너기츠)다. NBA 전문가들은 이들 외에 자 모란트(멤피스 그리즐리스)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란트는 올 시즌 33경기에 나서 평균 24.4점, 5.7개 라바운드, 6.7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멤피스는 모란트의 활약에 힘입어 서부 콘퍼런스 3위로 뛰어올랐다.

올 시즌 MVP 경쟁에서 과연 누가 최후에 웃을지 주목된다.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Sean Kim
Senior Loan Agent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신속한 융자 필요하신 분! 융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융자 가능

- Low/ No Document Program
- Conventional Loan
- Refinance/ Rate & Term/ Cash-out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